

▶ 대한민국독서대전 기획전시 '한권의 책, 마음에 닿다'

# 책이 건네는 위로 · 공감 느끼다

한옥마을 내 공예품전시관에서 전주를 소개로 한 책들 유명인이 권하는 한 권의 책 지역 출판사·잡지사·서점 전북 문학작품 등 소개

어느 작가는 말한다. '책을 읽고, 거기서 내 마음과 똑같은 구절을 멋들어지게 표현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책을 읽을 때 놓칠 수 없는 환희'라고.

전주한옥마을 내 공예품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2017대한민국독서대전 기획전시 '한 권의 책, 마음에 닿다'에서 책이 건네는 위로와 공감을 느껴 보는 어떨는지.

'한 권의 책, 마음에 닿다'는 4개의 전시관과 1개의 체험관에서 진행된다.

제1관은 '한국의 꽃심, 전주가 권하는 책과 글'을 주제로 전주를 소개한 책들, 작가와 독자, 전주가 있다-전주한지·완판본·전주사고·관소리, 전주사람 김승수의 서재 속 책 두 권 등으로 구성된다.

문학인·인문학자·여행 작가 등 여러 직업의 필자가 과거와 현재,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면서 켜켜이 쌓인 전주만의 무늬를 소개하는 책을 통해 전주의 가치를 새롭게 살피고, 지식정보와 정보문화산업에 가장 앞선 도시 전주의 종이와 인쇄의 역사를 경험한다.

제2관은 '유명인이 권하는 한 권의 책'과 독자들이 직접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을 비롯해 이이화 민중사학자, 이익주 서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 기획전시 '한 권의 책, 마음에 닿다'가 전주한옥마을 내 공예품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다.

울시립대 교수, 전보삼 한국문화연구원 이사장, 차승재 영화제작자, 김명곤·김병용·김한·안도·정정숙 전주문화단체·축제조직대표, 윤중강·이운택 연출가, 김동식·양진성 국가무형문화재, 변영주·이창재·임순례·정병각 영화감독, 남상일·박애리 소리꾼, 김신욱·이동국·이재성 전북현대모터스 선수, 고아성·김대훈·신유·오하늘·부빅·홍운화 연예인 등 30여 명의 유명인이 감명 깊게 읽은 한 권의 책을 소개한다.

제3관의 주제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권의 책이 그대에게 닿기까지'이다. 작가, 독자, 그리고 그 둘을 잇는 출판사·잡지사·도서관·

서점을 중심 단어로 설정했다. 문화저널·신아출판사·홍지서림 등 작가·독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연결하는 전북의 출판사·잡지사·도서관·서점을 소개하며, 문학작품 속 사투리와 영화가 된 문학작품 등 더 맛있게 책을 읽는 방법도 전한다.

제4관은 전북도의 문학과 문학작품을 소개하는 '문학의 분향, 전라북도'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문학과 문학 성지를 통해 폭이 넓고 속도 깊은 전북의 문학을 살핀다.

전시는 9월 3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정해은 기자

## '청년작가 완주 한 달 살기' 결과발표 오픈하우스 진행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31일 오후 2시 '청년작가 완주 한 달 살기' 프로그램 결과발표 오픈하우스를 진행한다.

청년작가 완주 한 달 살기는 청년예술가들의 완주 유입, 즉 문화귀향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예술창작과 향유 그리고 유통이 선순환하는 예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기획된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3일부터 완주군 소양면 인덕마을 입주한 최규연·임정은 작가는 때로는 주민들과 함께 식사와 담소를 나누고, 거주 지역 마을과 완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연이 주는 힐링과사람이 주는 마음을 캔버스에 담았다.

이들은 그 동안 작업했던 풍경 및 인물 등 180여점을 마을주민들이 쉽게 관람 할 수 있도록 거주한 공간에 전시한다. /정해은 기자

## 원광대 국악과 김은숙 동문, 전남 무형문화재 지정

원광대학교 국악과 동문 김은숙(57) 가야금 병창이 전라남도 무형문화재(가야금병창) 50호로 지정됐다.

장성군 황룡면에서 출생한 김은숙 동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가야금을 접하고, 이후 원광대 국악과를 거쳐 2002년 원광대 교육대학원 국악교육 석사를 취득했다.

김은숙 동문은 한속구류 가야금 병창을 시사 받아 전남을 비롯한 광주광역시를 기반으로 보존·전승해 왔으며, 현재 우리소리연구회 기향(歌香)대표로서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한편, 한속구류는 가야금 산조와 병창의 다양한 유파 중 하나로 전라남도에서 발현해 깨끗하고 힘찬 소리가 특징이며, 김은숙 동문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을 한속구류-정남옥-정달영-강정열 보유자의 뒤를 이어 이수해 전남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동문은 "한속구류 전승과 후학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며, "전남 화순이 한속구류 가야금 병창의 발생지인 만큼 전남에서 문화재로 지정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동문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을 한속구류-정남옥-정달영-강정열 보유자의 뒤를 이어 이수해 전남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동문은 "한속구류 전승과 후학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며, "전남 화순이 한속구류 가야금 병창의 발생지인 만큼 전남에서 문화재로 지정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이번주 상영작... '김광석' '디아더스'

## 긴장감 놓을 수 없는 미스터리한 사건 다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룬 영화 두 편을 '8월 마지막 주 개봉작'과 '9월 주말의 명화'로 개봉·상영한다.

8월 마지막 주 개봉작은故 김광석을 기리고 그의 죽음에 의문을 던지는 '김광석'.

영화 '김광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故 김광석의 목소리를 추억하며, 그의 노래 속에 담긴 자전적 인생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풀어 쓴 음악 다큐멘터리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비밀을 다룬 '다이빙벨'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상호 감독의 두 번째 작품으로故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재조명하며, 사실상 알려진 그의 사망 이유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영화는 감독이 20년간 추적·취재한 사망 미스터리를 스크린 위에 풀어놓으며, 관객들을 그날의 현장으로 데려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사랑했지만', '먼지가 되어', '나의 노래' 등 그의 대표곡도 만날 수 있다.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초청되며 작품상을 인정



김광석



디아더스

받았다. 9월 주말동안 상영되는 '주말의 명화' 상영작은 무서운 장면 없이도 무서운, 반전 영화의 마스터피스로 꼽히는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감독의 '디아더스'.

'디아더스'는 심장을 조이는 스릴과 치밀한 심리

전, 아름다워 더욱 섬뜩한 영상 그리고 반전의 영화로 꼽힌다.

영화는 남편을 전행터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여인과 빛을 보지 못하는 희귀병을 앓는 두 아이가 자신들의 집에 새로운 하인들을 들이게 되면서 겪는 기이한 일들을 그린 작품이다.

니콜 키드먼의 명연기와 소름끼치는 결말 그리고 매력적인 이야기로 오랜 시간 찬사를 받고 있는 작품으로, 정식 재개봉일보다 앞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다.

골든 글로브, 베를린 영화제 등 30개의 영화제에 노미네이트되었으며, 고야 영화제, 아카데미 새턴 어워드, 런던비평가상 등의 시상식에서 29개 부문의 상을 수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신석정 문학상 · 촛불문학상 수상자 발표

### 문학상, 시인 공광규씨

### 촛불문학상, 심옥남씨 선정

신석정기념사업회, 신석정 문학상·촛불문학상 수상자 발표

신석정기념사업회(이사장 윤석정)는 시인 공광규 씨를 '신석정문학상', 시인 심옥남 씨를 '신석정촛불문학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했다.

수상작은 공광규 시인의 작품집 '담장을 허물다' (2013 창비)와 심옥남 시인의 시집 '표면 장력'이다.

심사위원들은 공광규 시인의 시를 일컬어 "철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문예성을 빛냈으며, 순정적 투명한 서정이 깃든 웅숭한 내면적 성찰이 돋보이는 시를 창작했다"고 평했다.

공 시인은 충북 청양군 출신으로 동국대 국문과를 나왔으며, 86년 동서문학으로 데뷔했다.

이와 함께 심옥남 시인의 시에 대해선 "인간과 우주, 생과 사 등의 대칭적 상황을 한 화면에 융합시켰으며, 이를 관통하고 넘나들

며 형상화가 빼어난 시를 창작"하고 있다고 평하며 "시의 창의적 발상이 탁월하다"고 밝혔다.

심 시인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북 단단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8일 오후3시 부안 석정문학관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 완주서 KBS 국악한마당 공개녹화

완주군이 내달 1일 오후 7시 30분 이서지 사울공원 야외특설무대에서 KBS '국악한마당' 공개녹화가 진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공연에서는 완주출신 소리꾼 남상일을 비롯해 강은일 해금플러서, 에스닉팝그룹 락, 한충은&포레스트, 김에미의 출사위까지 다양한 국악장르를 한 눈에 만날 수 있다.

소병주 기획감사실장은 "가을의 시작을 국악의 공연으로 열게 됐다"며 "생태공원으로 거듭난 지사울공원에서 가을의 밤을 만끽할 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